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별도공모
- 회의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14:00 ~ 17: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은정, 김정연, 이예진, 이재진, 임수연

본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 별도공모는 민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300석 이상의 중·대공연장과 예술가(단체)의 공동기획으로 공연장의 특성화된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망한 예술가들에게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수도권의 우수작품을 유치 또는 비수도권 소재 공연장의 활성화 및 장애인 관객 접근성이 높은 공연장을 우대함으로써 중대형 공연장을 통한 지원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회는 기획력을 갖춘 공연장이 예술가(단체)와의 협업으로 특색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연장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의 구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프로젝트(프로그램)로 예술가(단체)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관객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심의 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공정한 심의 과정을 이행하였습니다.

각 심의위원은 신청단체의 지원 자격인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의 우수성(40%)을 살펴보고자 공연장과 예술가(단체)의 공동기획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공동기획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수한지,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등의 사업계획 전반의 우수성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그 구체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운영(40%) 역량과 관객개발 계획의 구체성, 향후 공연장 운영을 통한 공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기여에 대한 사업의 기대효과(20%)도 검토하였습니다.

심의회에서는 신청사업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300석 이상의 중·대공연장이 주체가 되어 예술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연장 소재의 새로운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객을 위한 편의 제공에 노력하는지, 그리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공연장을 특성화하는 레퍼토리로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지와 그 실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의 공통된 강점으로는 각각 클래식과 국악 분야의 국내 유망한 예술가(단체)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공연장 내에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 홍보마케팅의 실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항목의 구체적 명시와 항목별 해당하는 예산 규모가 적절하였다는 점, 공연장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 관객의 공연장 접근이 용이하며, 주차 등 기타 편의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연장의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예술가(단체)와의 협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국내 전 지역의 예술가(단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강점과 각각 클래식과 국악이라는 특성 안에서 다수의 예술가(단체)에게 재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본 사업이 중·대공연장과 예술가(단체)의 공동기획으로 레퍼토리를 개발함으로써 기초공연예술에 대해 명확한 기여도를 기대할 수 있는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1~2년의 대관 및 기획 공연 계획이 사전 수립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올해 5월에 별도공모로 공고가 나간 당해년도 사업이라 민간 공연장들이 공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사업을 중/장기적인 다년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공연장이 자체 브랜드/레퍼토리를 갖춘 특성화 공연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획력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술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의 팬덤을 조성함으로써 관객을 유입/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획 공연장으로 발전하는 데 고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심의위원 일동